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3개월 앞 제조업체 3분의 2 “준비 안 됐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427곳 전수조사 ... “단축완료” 35.4%

“시행 1년 늦춰달라”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지역 제조기업(50~299인) 3곳 중 2곳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인력 충원의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 등을 들어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14면〉

29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 사업장이 50~299인으로 확대된다. 광주·전남지역 해당 제조업체는 427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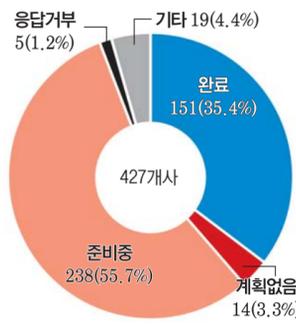
광주전남중기청이 지난 6월 말 이들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35.4%인 151곳만이 노동시간 단축을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절반이

남는 55.7%(238곳)는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3.8%(14곳)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지역 기업들은 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또 인건비 부담, 생산량 감소, 근로자 불만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실제 광주 가전업체 A사는 라인 증설과 대기업 아웃소싱 불량 확대 등으로 인력을 40~50명가량 충원해야 한다. 업종 특성상 힘을 쓸 수 있는 젊은 직원이 필요한데,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까지 겹치면 인력난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사 대표는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은 멘붕”이라며 “중소업체 근로자들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인데, 주

■ 광주·전남 제조기업(50~299인) 노동시간 단축 실태조사 현황



52시간 근무만 하면 실질임금이 줄어든다. 임금 높은 곳을 찾아 떠날 것”이라고 토론했다.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인력을 충원

하고 나면 추가 인건비 부담도 걱정이다.

전남의 한 섬유제품 제조업체는 “근무지가 전남이어서 출퇴근문제 등으로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 상시근로인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등 규제도 강화된다.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돼 이만저만 부담되는 게 아니다”면서 “1년정도 유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유연근로제 확대, 급여 보전 등 인건비 지원, 제도 전환에 대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도 최근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로 매우 지쳐 있다”며 “경제 상황과 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역 유통업체와 금융가는 유연근로제 활용 등으로 주 52시간보다 적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는 등 근로환경 개선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검찰 개혁”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검찰개혁’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광주도시공사 압수수색 ...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확대

‘호반’ 이어 ‘한양’ 선정과정도 광주시 감사위 또 압수수색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에 이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우선협상자가 뒤바뀐 중앙공원 2지구 사업뿐 아니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우선협상자가 변경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까지도 수사범위가 커진 것이다. 중앙공원 1·2지구(풍암·화정동 일원)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

상지 10곳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큰 곳으로 평가받는데 애초 업체 선정 후 평가결과표가 유출되고, 탈락업체 이의제기와 그에 따른 광주시 특정감사를 통해 우선협상자가 뒤바뀌면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다.

29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 25분부터 광주도시공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6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장실 등 임원실, 기획전략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뀐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광주시 감사위원회(상임감사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된 공무원과 업무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

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가 유출됐고, 탈락업체가 유출된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평가에 이의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었는데도,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벌였고 결과적으로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가 뒤바뀌었다. 업체가 뒤바뀐 배경에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5일 광주시 정중제 행정부시장실, 운영열 감사위원장실, 공원녹지과, 시의회, 김동찬 시의회 의장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공원을 택지로 조성한 뒤 민간 건설업체에 땅을 되파는 일명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려다가 사업을 포기했다.

당시 광주도시공사 일부 임직원들은 “민간공원 개발로 이익을 얻게되면, 광주시민을 위한 다양한 (주택)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협상자 선정을 반겼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지난해 심사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후 특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재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2순위였던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고 1순위인 금호산업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심사 오류를 이유로 지위를 취소한 것과 재공모 없이 호반건설로 변경한 데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하고 함께 광주시 환경생태국과 감사위원회 관계자,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하는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해 일부에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조국 정국’ → ‘검찰 개혁 정국’ 전환

검찰청사 앞 대규모 촛불집회 문 대통령 “수사관행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공개 비판한데 이어 28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려 그동안의 ‘조국 정국’이 ‘검찰 개혁 정국’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29일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은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에 주목하며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은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공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직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확인됐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조국 정국’으로 빠져 있던 검찰 개혁이 국민적 열망을 동력으로

로 급류를 타는 것은 물론 지지층 결집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전날 서초동 촛불집회에 200만 명이 모여 검찰 개혁을 외쳤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차원의 검찰·사법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대통령이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조국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 메시지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강도높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9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

2019. 10. 25(금) - 27(일) 3일간
완도해변공원 / 완도타워 / 완도수목원 / 청산도 일원
 주최·주관 청정완도가을빛여행추진위원회